

“추석 연휴, 실감형 게임 콘텐츠로 보훈 체험하세요”

보훈부, 독립·호국·민주 주제로 공개
6개월 만에 10만여 명 참여 큰 호응
각 미션 완료자 추첨 통해 상품권 지급
“재미는 기본, 감동까지 선사”

“생생한 이야기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희생을 기릴 수 있었어요.”

국가보훈부(보훈부)는 지난 4월부터 차례로 공개된 3가지 실감형 게임 콘텐츠가 지금까지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콘텐츠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배경의 ‘1937’, 전쟁기념관 배경의 ‘로스트 솔저’, 국립4·19민주묘지 배경의 ‘이 세계에서 자유가 사라진다면’ 등 각각 독립·호국·민주를 주제로 제작됐다. 참여자가 이야기 속 주인공이 돼 기념관과 국립묘지를 탐방하며 단계별 임무(미션)를 해결하도록 설계됐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된다는 게 보훈부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각 게임은 5점 만점에 4.9점이란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참여자들은 “기념관을 새로운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



전쟁기념관 관람객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실감형 게임 콘텐츠 ‘로스트 솔저’에 참여하고 있다.

보훈부 제공

어 좋았다” “재미에 감동이 더해져 아이와 함께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등의 후기를 남기고 있다.

특히 전쟁기념관을 배경으로 한 ‘로스트 솔저’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영문판으로도 제작돼 지난 8월 영국 스카우트 대원 1000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함께한 앤드루 해리스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자칫 조용하고 지루할 수

있는 기념관 관람을 게임으로 생생하게 즐길 수 있어 좋았다”며 “비무장지대(DMZ)나 공동경비구역(JSA), 임진강 등 전쟁 유적지에 비슷한 콘텐츠를 적용해도 좋겠다”고 호평했다.

보훈부는 임무 수행을 완료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해 휴대전화(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보훈부는 오는 10월 3일까지

온라인 접속(k-exam.realworld.to/2023/09)을 통해 ‘전국보훈능력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보훈능력시험은 보훈과 관련한 역사와 상식을 퀴즈로 겨루는 고등학교 대항전이다.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보훈부는 참여자 수와 누적 점수로 1위 학교를 선정한 뒤 해당 학교에 간식차를 보낼 예정이다.

임채무 기자

프랑스군 소장 ‘6·25 미공개 전사 자료’ 찾았다

전쟁기념사업회, 현지 방문 확인
이력표·지도 등 54상자 분량 발굴

6·25전쟁에 참전한 프랑스군의 미공개 전사(戰史) 자료가 확인됐다.

전쟁기념사업회는 26일 “백승주 회장이 지난 18~19일(현지시간) 6·25전쟁 미공개 자료를 발굴하기 위해 프랑스 국방 분야 주요 아카이브 기관인 국방역사국(SHD)과 국방영상제작원(ECPAD)을 방문했다”며 “두 기관에서 지금까지 국내에 공개되지 않은 기록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사업회는 국방역사국에서 프랑스 참전 용사의 이력표, 지도, 전투상보 등 54상자 분량의 6·25전쟁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국

방영상제작원에서는 프랑스군이 6·25전쟁 중 촬영한 고화질 흑백·컬러사진 1300여 장과 영상 자료 다수를 살펴봤다.

사업회는 두 기관의 6·25전쟁 관련 자료 소장목록을 제공받아 후속 실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말 운영을 시작하는 전쟁기념관 6·25전쟁 온라인 아카이브에 탑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두 기관과 협력을 계속해 추가 미공개 자료를 발굴할 방침이다.

백 회장은 “두 기관이 갖고 있는 6·25전쟁 자료는 대부분 국내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라며 “온라인 아카이브와 사진전으로 이를 한국에 알리는 한편 두 기관과 계속 협력해 구체적·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엄동환(오른쪽) 방위사업청장이 대전시 유성구의 아동복지시설인 천양원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방사청 제공



국군의무학교 의무군무학처 교관들이 소외계층을 돕고자 기부금 모금으로 구매한 생필품을 지역 복지센터에 전달하고 있다.

부대 제공

군, 나눔으로 한 걸음 이웃돕기 큰 걸음

방사청, 대전 아동복지시설 성금 기부
국군의무학교, 복지센터 기부금 전달

추석 명절을 맞아 군 부대·기관들이 지역 행정·복지시설을 위문 방문하며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6일 “엄동환 방사청장이 전날 대전시 유성구의 아동복지시설인 천양원을 방문, 직원들과 함께 마련한 성금·위문품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대전으로 청사를 이전한 뒤 처음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사회복지시설 3곳에도 성금과 위문품을 기부하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국군의무학교도 26일 “최근 국방일보 전우마라톤 행사에 참가한 의무군무학처 교관들이 지역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학교에 따르면 교관들은 전우마라톤 참가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자 기부 모금을 추진했다. 이어 전우마라톤에서 전원 목표 거리를 완주하며 기부금을 모금했고, 약 20만 원의 기부금으로 생필품을 구매한 뒤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행정복지센터에 지난 22일 전달했다.

기부 물품들은 지역 독거노인과 기초수급권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서현우 기자



백승주(앞줄 가운데) 전쟁기념사업회장이 프랑스 국방영상제작원에서 국내에 공개되지 않은 6·25전쟁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전쟁기념사업회 제공

인사 ◆ 국가보훈부 <3급 승진> △보훈단체협력담당관 조경철 △운영지원과장 홍경화 <4급 승진> △차관실 이삼진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이근미 △감사담당관실 김종일 △운영지원과 이동일 △보훈정책실 국립묘지정책과 송현숙 △복지증진국 복지서비스과 김명호 △복지증진국 보훈의료혁신과 이태승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 강대원